

2023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전서

메시지 14

그리스도의 몸의 섞임과 실제 안의 생활

성경: 고전 12:12-27

- I.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시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독신’의 하나님, 육체 되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복합되신 하나님, 강화되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합병되신 하나님 —의 점진적인 계시이다. 합병되신 하나님은 몸-그리스도이시며 ‘결혼하신’ 하나님, 곧 궁극적으로 합병되신 하나님이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 II. 주님의 현재의 회복은 (“그리스도”), 곧 교회 생활 안의 몸-그리스도의 회복이다. 몸-그리스도는 합병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골 2:6)은 몸-그리스도이신 그분, 곧 합병되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고전 12:12-13, 행 9:4-5, 15, 골 2:19, 엡 4:1-6, 15-16, 요 14:20, 23, 17:21).
 - A.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몸-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지체들과 합병되신 그리스도이시다.
 - B.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을 때 보았던 단체적인 ‘나’이다. 그는 주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이들이 위대한 한 사람 — 놀라운 ‘나’인 것을 보았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그분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닌 놀라운 ‘나’, 곧 합병되신 하나님이신 몸-그리스도이시다(행 9:3-5, 골 2:6).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유일한 작가이다(롬 12:4-5, 고전 12:12-27, 엡 1:22-23, 2:16, 4:4, 16).
 - C.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몸-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몸-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는 단체적인 몸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몸을 가진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든다.
 - D.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화’의 회복, 교회 생활 안에서 몸-그리스도의 실재를 얻기 위한 순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회복이다 — 살전 5:23, 빌 1:19-21 상, 3:8-14, 고후 2:10, 골 3:10-11.
 - E. 오늘날 주님은 교회 생활 안에서 몸-그리스도를 건축하고 계신다. 몸-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지체들 안으로 건축되시고, 그분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 그분 안으로 건축된다 — 골 2:19, 롬 12:2, 고후 3:18, 고전 12:12-13.
 1. 몸-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 고전 12:3 하, 13.
 2. 몸-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체들의 기능이 있다 — 고전 12:14-22, 14:31.
- III.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 — 고전 12:24.
 - A. ‘섞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조화되게 하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를 의미하며, 차이점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함축한다.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교통은 우리를 조절하고, 조화되게 하며, 고르게 하고, 연합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교통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멈출 것을 요구한다.

- C. 섞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만져지고 다른 이들을 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섞임의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만져야 한다.
- D. 섞임은 우리가 십자가로 제해되는 것을 요구한다. 섞임은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존재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를 요구한다.
- E. 리 형제님은 우리를 떠나 온전히 주님과 함께 계시기 얼마 전인 1997년 3월 24일에 “감사하며 전하는 교통의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서 형제님은 “주님은 나에게 그분께서 동료 노예들로서 나와 함께 섞여진 방식으로 봉사할 많은 형제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몸을 위한 그분의 주권적인 공급이며 그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94-1997년판 5권, 영문판 525 쪽)

IV.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의 공급을 누릴 수 있다. 몸의 공급은 복합적인 관유, 곧 바르는 거룩한 기름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다 — 빌 1:19-21 상, 출 30:23-25.

- A. 복합적인 영은 몸 안에 있고 몸을 위하여 몸을 건축하는 제사장의 봉사를 위한 것이다 — 출 30:26-31, 롬 15:16, 벧전 2:5, 9, 시 133:1-3, 엡 4:3.
- B. 우리는 지체들의 중보 기도와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공급을 받는다.
 - 1. 우리가 메마르고 나아갈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 — 빌 1:19, 살전 5:25, 욥 42:8-10.
 - 2.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공급으로 받아야 한다. 그럴 때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자신이 먹을 수 있고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먹일 수 있다 — 눅 11:1-13.
 - 3. 우리는 몸의 공급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끊임없이 몸의 교통 아래 우리 자신을 열어 두어야 한다 — 살전 3:8, 고전 10:16 상, 요일 1:3.
 - 4. 우리가 몸 안에서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몸의 공급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빛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 곧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한다 — 시 73:16-17, 마 5:14, 계 1:20.
 - 5.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 고립되지도 않았고, 몸의 공급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 빌 1:19.
 - 6. 몸은 지체들 사이의 상호의존을 통해 건축된다 — 고전 16:18, 엡 4:16.

V. 몸 안에는 독립이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지체들이고 지체들은 몸에서 분리되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 롬 12:5, 엡 5:30.

- A. 모든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모든 지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고전 12:15, 21, 롬 12:3.
- B. “만일 우리가 참으로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두 번째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위치만 니, 그리스도의 비밀, 영문판 16 쪽) — 요 1:50-51, 창 28:17, 딤후 3:15.
- C. 자신이 몸의 지체들인 것을 보는 이들은 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한다 — 고전 12:23-24, 빌 2:29, 고전 16:18, 삿 9:9.
- D. 몸의 계시가 있는 곳에 몸-의식이 있고, 몸-의식이 있는 곳에서 개인주의적인 사상과 행동은 제해된다.
 - 1. 몸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가득한 생활과 타고난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생활에서도 구출받아야 한다.
 - 2. 아버지께서 세상과 대립하시고(요일 2:15), 아들은 마귀와 대립하시며(요일 3:8), 그 영을 육체와 대립하시는(갈 5:17) 것과 똑같이 몸은 개인주의와 대립된다.
 - 3. 우리가 머리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몸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 비고 마 16:21-26.
 - 4. 내가 모르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는 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는 본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는 한다.
 - 5. 우리가 동료 지체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다(고전 12:12, 행 9:24-25, 고후 11:30-33). 조만간 모든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메마르게 될 것이다.

VI. 몸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몸의 보호를 체험할 것이다.

- A. 몸은 모든 지체에게 보호를 제공한다(마 16:18).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한다(엡 6:10-20).
- B. 영적 전쟁은 이 원칙, 곧 한 사람이 천 명을 뒤쫓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하는 원칙 안에 있다 — 신 32:30, 전 4:9-12, 롬 16:20.
- C. 고립된 개인은 속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몸이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빌 3:3, 행 21:4, 11-12.
- D. 우리 모두 몸의 보호의 실재를 보아야 하고, 몸의 보호 아래 숨어야 하고, 몸의 안전 장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VII.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분량을 넘지 말고 다른 지체들에게 제한받도록 허락해야 한다.

- A. 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은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지 않는 것이다 — 엡 4:7, 16.
- B. 머리는 몸 안의 우리의 특정한 자리를 정하고 우리의 특정한 기능을 알려준다 — 고전 12:18.
- C.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어 주신 것에 따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의 제한, 하나님이 재어 주신 제한 안에 머물면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 — 고후 10:13.
 - 1.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는 순간 머리의 권위를 벗어나며 기름 바름 아래서 나가게 된다. 우리의 분량을 벗어날 때 우리는 몸의 질서를 손상시킨다.
 - 2. 우리가 맑은 생각을 갖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무효화한다 — 롬 12:3.

VIII. 우리는 항상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고,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해야 한다 — 고전 12:23-27.

- A. 회복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개별적인 지방 교회를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한다 — 고전 12:14, 롬 12:2, 4-5.
- B. 지방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곧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실재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이다.
- C.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반드시 몸을 위해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몸이 어떻게 느낄지 고려해야 한다.
- D. 우리는 자기를 추구하는 것에서 구출받아 몸을 고려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몸의 건축을 위하게 될 것이다.